

‘白骨’ 유병언 두고...검·경 40일간 ‘헛발질’

‘유병언 사망’ 관련기사 2·3·6면
총체적 무능·부실수사
국민들 분노의 목소리
순천경찰서장 전격 경질



검찰과 경찰이 신병확보에 주력했던 유병언(73·사진) 전 세모그룹 회장이 결국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검·경의 무능함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코앞’ 수배자도 못 찾은 수사기관의 무능력함 때문에 애꿎은 국민만 총동원되는가 하면, 사생활·인권 침해까지 감수해야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순천경찰은 22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이 순천지역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DNA가 검·경의 수사활동으로 확보한 유병언씨 DNA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결과를 21일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순천시 서면 학구리 매실밭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 전 회장임을 최종 확인한 것으로, 세월호 침몰 참사(4월 16일) 이후 98일만이다. 유병언씨가 지난 5월 25일 순천시 서면 학구리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에서 머무르다 도주한 뒤 1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해당 지역의 경우 경찰이 유씨 은신 사실을 확인하고 연인인 8116명을 투입, 집중 수색을 벌였던 송치재 휴게소부터 2.5km 떨어진 곳인데다, 지난 12일 유씨로 의심되는 유류품과 함께 변사체가 발견됐는



뒤늦은 유류품 수거 전남경찰 과학수사팀이 22일 순천시 서면 신촌마을 박모(77)씨의 매실 밭에서 미처 수거하지 못한 유병언 전 회장의 머리칼과 목뼈 등을 채집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초기에 무연고자로 처리, 시신수습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유병언 추정 변사체 발견 위치
데도 별다른 의심 없이 ‘노숙인’으로 취급, 40일동안 방치해왔다는 점에서 수사당국의 허술함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 검·경 설명대로라면 경찰은 이미 변사체로 발견돼 장례식장에 있는 유씨의 소재를 찾겠다며 밀항을 우려, 향·포구를 뒤졌고 경찰은 지난 21일 “반드시 잡겠다”며 유씨에 대한 사천구속영장을 재발부반는 촌극을 벌인 셈이다.

검·경 수사당국이 변사체 발견 뒤 적극적인 수사 의지만 보였어도 이후 국민이 반사회를 통해 유씨 검거를 위해 총동원되는가 하면, 마구잡이식으로 가정집에 들이닥치고 택배회사와 물품을 뒤지는데 따른 인권·사생활 침해 피해를 입지 않아도 됐다는 지적도 높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임시 반사회를 열어

국민의 협조를 구했고 경찰은 지난달 24일 구체적 정황도 없이 택배 이용객을 수사 대상으로 올려 인권 침해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유씨 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검·경의 총체적 부실·무능함에 대한 국민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찰청은 당장, 미흡한 조동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순천경찰서 우형호 서장, 담당 형사과장, 과학수사팀장 등에 대한 징계에 들어간 만큼 수사 책임자인 검찰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유병언 사체 순천서 발견 ... 경찰 “DNA·지문 일치”

지난달 12일 순천시 서면 학구리 매실밭에서 발견된 변사체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장해진해운 회장)으로 22일 확인됐다.

순천경찰은 이날 “발견된 변사체 DNA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DNA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결과를 경찰청으로부터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감식 결과, 검·경이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 ‘숙숙의 추억’과 금수원 내 유씨 작업실에서 확보한 두 개의 유병언 DNA 시료와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변사자의 오른쪽 집게손가락의 지문 1점을 채취해 검색한 결과 유씨의 지문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아울러 감정 결과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유씨 형 병일(75·구속기소)씨와의

부계 Y염색체와 모계 X염색체(미토콘드리아 확인법)를 대조 확인해 동일한 부모를 둔 형제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유씨 시신은 지난달 12일 순천시 서면 학구리 송치재 휴게소로부터 2.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으며 당시 거의 반백골 상태였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돼 신원 확인을 위해 DNA 분석을 의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시신 주변에는 소주병, 막걸리

병 등 유류품도 함께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유씨 일가 계열사인 ㈜한국제약 생산 ‘ASA 스쿠알렌’ 빈병이 들어있었다. 천가방 안쪽에는 유씨가 직접 쓴 책 제목과 같은 ‘꿈같은 사람’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경찰은 이날 유씨 시신을 국과수 서울분원으로 옮겨 재부검을 실시 중이다. 경찰은 재부검이 완료되면 시신이 유씨임이 최종 확인되는 만큼 사인과 타살 여부, 사망시점 등도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위판액 반토막...얼어붙은 수산업 ‘진도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까

‘세월호 100일’ 관련기사 4·5면

22일 오전 11시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진도군수협 서망위판장. 11시 정각에 시작된 위판에는 경매를 주관하는 경매사 2명과 고기를 낙찰 받으려는 중도매인 8명 등 10명만이 자리를 지켰다.

오전 9시30분 첫 경매에 이어 두번째 열린 경매도 출하된 수산물에 봉장이 300kg와 잡자마자 죽어버린 민어 등 잡어 100kg이 전부여서 경매 시작 2분만에 마감에 끝나버렸다. 좋은 고기를 쓴가격에 구매하기 위해 경쟁하느라 30분간 치열한 눈치싸움이 이어졌던 과거의 경매 모습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진지 오래다. 관광객들의 발길도 뜰 없었다.

서망위판장은 세월호 참사전에는 진도 인근 해역에서 거둬올린 봉장이 귀·민어·오징어 등 갖가지 고기를 가득 대상으로 올려 인권 침해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유씨 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검·경의 총체적 부실·무능함에 대한 국민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찰청은 당장, 미흡한 조동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순천경찰서 우형호 서장, 담당 형사과장, 과학수사팀장 등에 대한 징계에 들어간 만큼 수사 책임자인 검찰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서망위판장에 들어온 어류 등 수산물은 지난해 ▲5월 285t 812kg(62억4800만 원어치) ▲6월 52t 392kg(10억 9400만 원어치)이었지만 올해는 ▲5월 184t 748kg(38억4400만 원) ▲6월 29t 168kg(5억1700만원)으로 겨우 예년 대비 절반 수준이다.

상인들은 진도 산 물고기 등 수산물 일체가 “침몰한 세월호에서 흘러나온 기름 탓에 모두 오염됐다”거나 “진도산 물고기들은 시신을 먹어치웠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온·오프라인에까지 퍼지는 바람에 고깃배 자체가 위판장을 찾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중도매인 등 위판장 상인들 수입도 절반 가까이 대폭 줄었다. 10년 이상 이곳에서 중도매인으로 일하고 있는 이도현(43)씨는 “참사 초기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제외하곤 진도 방문을 삼가달라는 정부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지지했는데, 여름 피서철이 됐는데 아무도 (진도를) 찾지 않으니...”라며 “실종자 가족들 생각하면 우리도 마음 아프지만, 도대체 언제 모두 끝나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지...”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진도 읍내에 자리한 ‘진도 수산시장’ 상인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16개의 점포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상가는 여름철이면 관광버스를 타고 인파가 밀어닥쳐야 하지만 올 여름엔 그 모습을 아예 찾아 볼 수가 없다. 하루 5대 안팎의 관광버스에서 500명에 이르는 외지 사람들이 시장을 찾아 저마다 양손 가득 산지 수산물을 사갔던 예년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시장 상인들의 얼굴에선 웃음이나 활기, 기대감이 사라진 지 오래다.

‘삼형제 수산’ 대표 김성훈(35)씨는 “자문 요망한 하루에 50만원, 100만원도 팔았는데 올 여름엔 관광객들 발길이 끊기면서 아예 공치는 날도 많다”면서 “심신한 물고기가 팔리지 않아 죽어버린 뒤 아무도 모르게 버려야 하는 우리 심정은 누가 알아줄까”라며 고개를 떨궜다.

수산시장 위층에서 대형 식당(330㎡ 규모)을 운영하는 김병훈(35)씨도 하루 하루가 죽을 맛이다. 이 식당의 지난해 6월 하루 매출은 평균 200만원, 주말이면 350만원 이상을 기록했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하루 평균 30만원의 매출 올리기도 쉽지않은 형편이다.

김씨는 “돈이 벌리지 않는다고 애먼 직원들을 자를 수도 없고 어서 빨리 진도가 활기를 되찾아야지...”라며 말을 흐렸다.

/진도=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박기용 수습기자 pboxer@kwangju.co.kr

학교설립 60주년 기념
독거노인 무료개안 수술을 위한 자선거 투어
8월 4일(월)~5일(화) 062)605-1128
광신대학교

최고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The New C-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주)
상설자동차(주) 광주 점주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경부권인 표준 연비 및 용량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ℓ당, 복합CO₂배출량 111g/km
C 200 1,991cc, 1,500kg, 자동기,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0.8km/ℓ, 고속도로연비: 14.1km/ℓ), 3ℓ당, 복합CO₂배출량 144g/km
C 200 Avantgarde 1,991cc, 1,500kg, 자동기,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0.8km/ℓ, 고속도로연비: 14.1km/ℓ), 3ℓ당, 복합CO₂배출량 144g/km
C 220 BlueTEC Avantgarde 2,143cc, 1,625kg, 자동기,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0.8km/ℓ, 고속도로연비: 14.1km/ℓ), 3ℓ당, 복합CO₂배출량 111g/km
C 220 BlueTEC Avantgarde with Passivacoustic-structure 2,143cc, 1,625kg, 자동기,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ℓ당, 복합CO₂배출량 111g/km
C 220 BlueTEC Exclusive 2,143cc, 1,625kg, 자동기,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ℓ당, 복합CO₂배출량 111g/km

복합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나 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수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